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55주년

본말사 신도조직 활성화 다짐

“전국의 신도를 결속해 명실상부한 한국의 단체로 만들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55주년 기념식·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모인 신도단체장들은 중앙신도회 55주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교구 본말사의 신도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결의를 다졌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포교국장 정무 스님, 김의정 회장,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 포교사단 임희용 단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중앙신도회의 55주년을 돌아보는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신도회는 1955년 6월 1일 창립해 2004년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의 통합으로 종단과 함께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 결집을 내딛은 결과 상설기관의 활성화와 의료 복지 활동 가속화, 신도회 정비 및 역량 강화 등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다.

혜종 스님은 기념법문에서 “승가가 곧 재가요, 재가가 곧 승가이며 이들은 둘이 아니다. 지난 55년간 많은 일을 일구어낸 중앙신도회의 역대 회장 및 임원과 김의정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교다. 불교의 중심에는 승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등 전국의 신도단체장들이 창립 55주년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가와 조계종, 신도회가 있다”며 “우리가 숭신 수범할 때 정치, 경제, 이웃종교계에서 존중해줄 것이다. 확고부동한 신심을 갖고 계를 지키며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신도회와 불교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임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신도회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신도회 지원금을 1억 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000만원을 추가지원 할 것을 밝혔다.

김의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앙신도회는 55년동안 회노애락의 변화속에서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가 통합했고, 신도운동의 염원이자 터전인 신도회관을 개관했으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스스로의 모습을 다듬고 말은바 소인에 충실해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종단과 함께 교구본말사 신도회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조직을 통해 조계종도로서의 자긍심고취는 물론 불교의 사회적 활동으로 지역과 사회에 자리매김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식전행사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마당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사)연우(이사장 구자선)에 기증된 ‘무료 이동한방김진버스 무사운영 기원법회’가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작가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

소설가 조정래가 말하는 ‘문학과 삶’

소설가 조정래씨 12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미래사학회연구소 제22차 불교미래사회포럼에서 ‘문학과 삶’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다음은 조정래 작가의 강연 요지이다.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 인생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문학이다. 작가는 신(神)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신을 닮고자 하는 문화인들이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 감히 그 범위에 범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많은 책을 썼다. 하지만 철학만 가지고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쓸 수 없다. 인생은 논리보다 체득이 중요하다. 문학은 인간의 삶 자체를 글로 쓰되 영혼에 감동을 불어넣어 오래도록 남도록 한다. 감동을 넣은 예술이다. 역사는 인생 전체의 기록이다. 역사는 기록할 만한 가치만 있는 것을 적은 것이라면, 문학은 회로애락을 감동적으로 쓰는 것이다.

문학은 역사에 비해 더 큰 범주다. 역사학자는 문학을 몰라도 되지만, 문학가는 역사를 모르면 문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대



표적인 예다. 인류가 없어진다고 할 때 인간이 살다간 증거는 불경, 성경, 역사책이 아니다. 제일 잘된 소설이다. 소설 속에는 종교와 철학, 역사, 풍습, 습관 모든 것이 버무려져 있기 때문이다. 깊이와 전통을 알기에는 제일 잘된 소설을 읽으면서 그 민족을 알게 된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문학작품을 읽고, 현실에 관한 괴로움을 견디어 가며 인생을 문학에 바치는 것이다.

표적인 예다.

인류가 없어진다고 할 때 인간이 살다간 증거는 불경, 성경, 역사책이 아니다.

소설가 조정래. 그는 일본의 은혜를 갚기 위해 식민지시대의 민족수난과 투쟁을 그린 소설(아리랑)을 썼다. 대하소설(태백산맥) <한강> <아리랑>에 이어 최근 출간한(허수아비 춤)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쳐 이 시대 좌표를 제시했다.

문화사들은 작가를 인류의 스승이고 시대의 산소라고 정의한다. 작가는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을 만큼 시공을 초월해야 한다. 정리=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조정래 작가는 1943년 전남 승주군 선암사에서 태어났다. 일본의 황국과 정책으로 대처승이 된 아버지 조종현과 어머니 박성순의 4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이런 자신을 일본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

소설가 조정래. 그는 일본의 은혜를 갚기 위해 식민지시대의 민족수난과 투쟁을 그린 소설(아리랑)을 썼다. 대하소설(태백산맥) <한강> <아리랑>에 이어 최근 출간한(허수아비 춤)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쳐 이 시대 좌표를 제시했다.

100자 뉴스

국박, 혜초 <왕오천축국전> 선보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던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 12월 14일 128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2월 18일부터 2011년 4월 3일까지 ‘실크로드와 둔황’ 기획전을 통해 <왕오천축국전>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기획전에는 <왕오천축국전>외에도 중국 신장(新疆)·감숙(甘肅)·영하(寧夏) 등 3개 성(省) 10여 개 박물관의 유물 220여 점이 전시된다. ‘혜초와 함께 하는 서역 기행’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8세기 혜초가 여행했던 길을 따라 파미르 고원 동쪽의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노덕현 기자

천수천안, 고양시에 ‘자비의 쌀’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이사장 대오)이 고양시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의 쌀 나눔은 20kg쌀 200포대를 최성 고양시장과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 이사 스님들이 함께한 가운데 12월 9일 고양시청에 전달했다. 이 쌀들은 고양 지역의 200여 세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봉정

구하·경봉·월하·백안 스님 등 영축총림 고승들의 일대기를 다룬 근현대 불교사 총서가 출간된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12월 16일 10시부터 월하 대종사 제7주기 추모일을 맞이해 경내에서 통도사 선조사스님들의 100년 행장기인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출판 봉정식과 출판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서울경기지역단, 포교사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경기지역단(단장 임희용)은 12월 4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교국장 남전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해도 스님, 불자가수협회 김환선 회장을 비롯한 300여 포교사 및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공연 및 포교사 공로포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포교사 공로포상으로는 군8팀 신현덕 전문포교사가 수상하고, 포교사단 단장상은 강민숙, 강예자 외 3명이 수상했다.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광동고서 조혈모세포 교육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2월 7일 남양주 광동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교육’을 가졌다. 12월 7일 광동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육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조혈모세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2010년 한국 보이차 연말연시 할인행사

어름에 선보였던 한국 보이차(청차 보이, 황차 보이)에 보내주셨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매진되었고 그 뒤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의 생병(녹차 보이)을 만들었습니다. 할인 판매는 연말부터 설명절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 바로 드셔도 좋은 차이지만 일 년 이상을 묵혀 드시면 더욱 맛있게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다관에서 우려 드셔도 좋으며, 떡차처럼 끓는 물에 넣어 다시 한 번 끓여내어 송충처럼 드시면 더욱 깊

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차있으로 만든 초의병차는 무농약, 친환경, 위생문제를 해결했으며 한국인의 미각에 맞는 깊은 맛과 향을 차인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초의 차사업단에서 정성들어 준비한 한국보이차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드립니다.



2010년 보이차 연말연시 할인행사 가격	
구분	보이차 300g
할인 가격	25,000원 → 15,000원
할인 기간	1월 31일까지
차 만든 시기	2010년 9월 1일 ~ 2010년 10월 10일
좀 더 다양한 맛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급 보이차! 가격 50,000원 (다섯 개이상 구입하시는 분께는 할인행사 보이차 1개를 더 드립니다.)	

구입 및 문의 061-285-0301, 2	
(사) 초의학술문화원	
입금 우 체 국 500033-05-002572 (사) 초의학술문화원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 초의학술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시 주문자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 제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 100% 환불해 드립니다. 	



청와대사랑채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행다시연 및 무료시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choyeetea.co.kr 후원 : 무안군